

# ‘최악의 한주’ 미국 확진자 33만명 넘어…사망 1만명 육박

美당국 ‘진주만, 9·11 테러’ 비유 “가장 힘든 주 될 것”  
뉴욕주 확진 12만·사망 4천159명…사망 증가폭 첫 둔화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번 주를 포함해 향후 1~2주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미국 확진자가 33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만명에 육박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5일 오후 4시52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33만1천234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 수는 9천458명이다.

전 세계 확진자의 약 2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사망자 수는 1만5천여명인 이탈리아, 1만2천여명인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최근의 급증세로 볼 때 곧 1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며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미 공중보건위원회를 책임지는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1주일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인

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주가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우리의 진주만과 9·11(같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극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2001년 9·11 테러에 비유한 것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도 이날 미 CBS 방송에 출연해 “심각한 한주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 주내 또는 그보다 좀 더 후에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곡선이 평탄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뉴욕주는 확진자가 전날보다 8천327명 늘어난 12만2천3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94명이 증가한 4천159명을 기록했다.

‘24시간 기준’ 뉴욕주의 신규 사망자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앞서 4일에는 사망자가 하루 전보다 630명이 늘어



의료장비 지급하라…시위하는 미 간호사들

한 개인보호장비(PPE)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망자가 1만명에 육박하는 등 전 세계 확진자의 약 2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브롱스의 한 병원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필요한 마스크 등 부족

/로이터=연합뉴스

났었다.

쿠오모 주지사는 신규 사망자 숫자가 약간 정체됐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면서 설부터 낙관을 경계했다.

뉴욕주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뉴저지주는 확진자가 전날보다 3천482명이

늘어난 3만7천50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917명을 기록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루이지애나주의

## 日 경로불명 코로나19 급증…젊은층 확산

검사 소극적 감염경로 몰라 방역 난항…긴급사태 선언 임박

일본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한 가운데 전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이 늘어 보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연휴 기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시설 공연장을 매개로 집단 감염된 이들까지 나오는 등 방역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는 양상이다.

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에서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규 감염자 143명 가운데 약 64%인 92명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

5일 확진자 117명 중 70% 가까이가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연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원을 추적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격리하고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런 조치를 철저히 하기도 어렵다.

일본 보건 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아사히 역시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배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쿄의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젊은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5일 확진자를 연령별로 구분하면 20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40대가 20명이었다.

이날 확진자 중 약 63%가 20~40대인 셈이다.

상대적으로 무증상자가 많은 젊은 감염자들이 확진 판정 전에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도쿄 시부야(澁谷)구의 라이브하우스 ‘로프트 헤븐’에서 지난달 20일 행사에 참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도 발생했다. 당일 행사장에는 출연자 15명

과 관객 50명이 있었는데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지난달 오사카부(大阪府)에서는 4곳의 라이브하우스를 방문한 이들 중 83명이 감염됐고 이들과 접촉한 22명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공연장을 매개로 100명 넘게 코로나19에 걸렸다.

비슷한 상황이 도쿄에서도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쿄에는 2천개의 라이브 하우스가 있고 다수는 현재 휴업 중이지만 여전히 공연을 계속하는 곳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도쿄의 확진자는 지난달 20~22일 연휴로부터 2주 정도 지난 후 급증하고 있다.

연휴 때는 도쿄의 주요 공원에 벚꽃을 보려는 상춘객이 몰렸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으며 NHK 집계 기준으로 5일 4천570명에 달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조만간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 빌 게이츠 “백신 나오기 전엔 정상화 안 될 것”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에 나오기 전까지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이날 미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처럼 예상했다.

그는 “언젠가 백신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라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은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

며 공장이 재가동되고 학교 문이 다시 열린 중국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처럼 부분적인 경제 활동 재개가 이뤄지더라도 “백신을 갖기 전까지는 다시 감염이 증가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미국인들이 철저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면 4월 말께 코로나19 사례의 증가세가 멈추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 검진을 시행해 감염 사례가 줄기 시작한 뒤에는 일정 정도의(경제 활동) 재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게이츠는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따 만든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공장 설립에 수십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그는 백신을 개발할 만한 제약사 7곳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年100조 베크렐 방출때 30km 확산”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조수의 흐름 등에 따라 가솔린 형태로 퍼질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제시됐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6일 후쿠시마 시내에서 지역 인사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분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 행사에서 이런 예측 모델을 공개한다.

도쿄전력이 해수 1ㄹ에 트리튬(삼중수소) 농도가 1베크렐(Bq)을 넘는 범위를 연간 방출량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 연간 100조 베크렐을 방출할 경우 원전 앞바다 쪽으로 2km, 좌우(남북)로 30km의 길쭉한 모양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간 방출량을 22조 베크렐 수준으로 낮추면 앞바다 쪽으로 700m, 좌우로 3km의 범위까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도쿄전력은 해양으로 내보

내면 방출량에 관계없이 바람과 조류 영향으로 해안을 따라 가솔린 길게 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NHK는 도쿄전력이 정부 전문가 소위가 해양방출과 함께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제시한 대기방출안에 대해서 일반적 모델이 없다는 이유로 확산 예측치를 내놓지 않았다며 어업 종사자 등 지역 관계자를 중심으로 해양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상가매매 (상무지구)

① 치평동 중심유통상가 6층80평  
(유흥주점,카페,노래방적합)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감정가시세 5억원  
-매매가 2억5천만원

② 치평동 중심유통상가 7층60평  
(유흥주점,카페,노래방적합)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감정가시세 3억원  
-매매가 1억5천만원

■추천물건  
① 광산구 첨단 쌍암동상가 10층 【24】평  
-매매가 7천8백만원(임대완료 -보300, 월44만원)  
② 용봉동 원룸 매매【룸15개, 주택1】  
-매매가 6억9천만원  
③ 장성토지 매매 1080평  
(1,080평 6억원, 분할300평 2억)

010-6670-9800

장성토지【급매】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 ~ 장성댐사이)  
장성호 개발예정  
⇒ 국도도로 12m접(앞면30m)  
■ 1,000평 매매시세 10억  
↳ 급매가 6억원 (용자3억 가능)  
■ 300평분할가능 → 급매가 2억원 (용자1억가능)  
( 전원주택,물류창고,사무실 투자적합 )

■추천물건  
① 장성을 용강리 국도변접함(760평)  
→ 매매가8천5백만  
② 장성 야은리(코너) 664평  
→ 3억5천만원  
③ 장성 야은리(식당) 182평  
→ 5억5천만원  
④ 장성 야은리(답) 379평  
→ 1억1천3백  
⑤ 장성 장성을 덕진리(1,243평)  
→ 1억6천1백만원  
⑥ 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6억5천만  
⑦ 담양읍메타세퀘아도로접(1470평)  
→ 매매가8억2천만  
⑧ 광주서구서창(197평)시청에서20분거리  
→ 매매가5억9천만

010-6670-9800

경매교육  
【기초반 · 특수반】

① 기초 실전반 모집  
(무료강의 병행)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 실전반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모집  
④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테디

이제 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지분,엔피엘)  
※10억짜리 부동산⇨ 3억에 가능

경매투자 연30%수익 가능  
· 근거당 설정시 연20% 가능

■추천물건  
①장성 남면 녹진리 4,620평 → 매매26억원  
②광산구 도산동 2층 구분건물 건물63.5평 →2억5천7백만원  
③서구 양동 주택 29평(건물)→ 4천6백4십만원

010-4667-9820  
062-382-5500

CMYK